



4면
개인 교육기부단 발대식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윤 2월 23일) 제3242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의 새로운 역사관광 기반 마련

왕의공원 프로젝트 '스타트'

20년동안 1조5000억 투입
3개 핵심·12개 연계사업
38개 세부사업 단계적 추진
전주 고도 지정 등 통해
프로젝트 소요 사업비 확보

전주의 역사문화자산을 꽃피우기 위한 시작으로 '왕의공원(宮苑)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전주시는 도심 곳곳에 위치한 후백제와 조선왕조의 역사문화유산을 현대적 의미로 재창조해 관광적 가치를 높이고, 문화관광 산업의 성장이 지역 경제·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100년 앞을 내다본 '왕의공원 프로젝트'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민선8기 우범기 전주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인 왕의공원 프로젝트는 후백제부터 조선왕조에 이르는 문화유산을 활용해 전주의 미래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한 대규모 사업이다.

시는 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유적과 문화재를 하나로 묶는 왕의공원 프로젝트의 3대 추진전략을 △역사 및 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왕의궁' △힐링 및 휴식 콘텐츠를 개발하는 '왕의정원' △생태 및 치유콘텐츠 개발을 위한 '왕의 숲'으로 제시했다.

시는 향후 20년 동안 추진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전주 구도심과 이종호수·승암산(치명자산), 건지산 덕진공원 일원에 대규모 관광·문화시설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축해 전주를 세계적인 역사관광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20년간 총 1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왕의공원 프로젝트는 각 권역별 관광자원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거점도시 인프라 구축, 지속가능한 관광지 조성을 위한 3개 핵심사업과 12개 연계사업, 3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주 고도(古都) 지정 △후백제 역사문화권 사업 △관광사업 예타 및 공모



우범기 전주시장이 12일 전주시 동고산성에서 '왕의 공원 프로젝트 현장 브리핑'을 열고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등을 통해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가장 먼저 전주가 고도(古都)로 지정되도록 만들기 위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개정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경주와 부여, 공주, 익산 등 4대 고도 외에도 추가 고도를 지정해 보존·육성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시는 전주 고도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을 진행 중으로 향후 전문가 자문 및 업무협의를 거쳐 고도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도로 지정된 이후에는 관련 특별 보존·보존육성 사업을 통해 왕의공원 프로젝트 세부사업이 전개된다.

또한 시는 지난 1월 17일 공포된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후백제 역사문화권이 국내 9번째 역사문화권으로 지정된 만큼 후백제 역사문화도시 전주의 조성을 위한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후백제 역사문화의 복원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연계사업을 기획하고, 관련 국비를 확보해 역사유적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관광 인프라의 경우 시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등을 통해 국비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다양한 정부 공모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향후 왕의공원 프로젝트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사업별로 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각 사업별 추진과제와 정책·경제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한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관광객을 위한 핵심거점공간이 곳곳에 들어서면 전주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문화시설 확보 및 콘텐츠 확충 등을 통해 체류형 역사관광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왕의공원 프로젝트는 후백제와 조선왕조의 다양한 역사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글로벌 역사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문화관광이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전주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12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라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힘 모으자"

전북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전북도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기관별 건의·협조사항을 공유하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벌였다.

전북도는 12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8개 공공기관장과 양오봉 전북대 총장, 최정호 전북개발공사장, 민간공동 위원장인 우석대학교 황태규교수와 전북대학교 최경숙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민선8기 출범 후 처음 갖는 기관·단체장 간 공식 상견례로 전북을 이끄는 동년자로서 소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관별로 건의 및 협조사항 등 총 20건의 사안을 놓고 실질적인 논의를 펼쳤다.

이날 위원회에서 전북도는 내년 1월 새로운 전북시대를 맞이하는 특별자치도 개정의 입법사항 및 중점특례 발굴사항과 정부가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기존의 공공기관과 연계한 기관 유치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자고 요청했다.

또한 △새민금 세계챔피언 일일 방문 프로그램 홍보 및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자발적 기부와 제안공모

참여, △불리한 지역여건과 정부 정원 감축에 따른 지역인재채용 확대, △공공기관장 모임 활성화 등 도청 협력사항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주시는 이전공공기관 연계·협력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준공 예정인 문화·체육시설의 적극적인 이용, 완주군에서는 지역상생을 위한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사용 확대, 먹거리 행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각각 요청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새민금 수변도시 '전기안전전물인중' 적용, 전기안전 클러스터 운영 인력양성을 위한 지역내 내 계약학과 신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는 미혼직원 지역 정착 여건 마련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입주조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유(일반)재산 실태조사 및 위탁관리 협력, 한국출판문화진흥원은 도내 농촌마을 문화 향유를 위한 독서문화 확산사업을 위한 사업비 확대 지원 등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혁신도시는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농생명산업 수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북발전의 핵심 원동력이다"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거듭 태어나는데 매우 중요한 만큼 함께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세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되어 생활체육인의 축제가 열리는 곳, 전라북도

2023. 5.12. - 5. 20.



전라북도 | APMG